

06. 관찰을 통한 분류

1. 직접관찰과 간접관찰

① 직접관찰

*사람들이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봄으로써 사물의 특성을 이해한다. 이 다섯 가지 관찰 방법을 “직접 관찰”이라고 한다.

이해하고 있는 것	이해하는 방법
스웨터의 부드러운 느낌	만져보고 피부에 비벼보기
라일락 꽃 향기	코로 냄새를 맡기
소방차의 사이렌소리	귀로 듣기
단풍의 빛깔	눈으로 보기
김치의 매운맛	맛보기

② 간접관찰

*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하여 직접 체득한 정보가 아니라 정보의 제공자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는 방식을 “간접관찰”이라 한다.

* 간접관찰의 제공자 역시 다른 것을 직접 관찰하였거나 다른 간접관찰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.

정보의 제공	알아낸 정보 · 지식
교사의 학습	교과지식, 삶의 태도
T.V 신문	여러 가지 정보, 스포츠, 사건 사고, 날씨
삶의 연장자	삶의 규칙과 가치관, 식습관, 행동규범
책	새로운 지식, 등장인물의 감정, 문제 해결력
컴퓨터	지역을 넘어선 글로벌한 정보

2. 관찰에서 분류로 이어가기

① 비슷한 점을 알기

- * 사물을 비교할 때 비슷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* 사물이 비슷하다는 것은 완전히 같은 것, 똑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.
- * 사물이 비슷하다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 서로 가장 닮았음을 의미한다.
- * 비슷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이다.

의도하는 일	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
물을 마신다.	컵, 그릇, 바가지, 두레박
포스터를 붙인다.	풀, 테이프
색칠을 한다	크레파스, 사인펜, 색연필
줄을 긋는다.	자, 막대기, 책받침
원을 그린다.	동전, 둥근 컵, 뚜껑

② 다른 점을 알기

- * 주어진 두 대상의 다른 점을 비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*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거나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.
- * 사람과 사물의 경우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“다른 점”이 그 사물의 특성이다.
- * 다른 점에 대한 관찰은 보다 명확한 비교이해를 준다.

만나는 두 대상	대상의 다른 점
장미와 백합	향기, 색깔, 모양
구두와 운동화	모양, 재질, 용도
오토바이와 자동차	엔진크기, 바퀴 수, 모양, 태울 수 있는 사람 수
여자 남자	성, 생김새, 목소리, 주민번호
바이올린과 첼로	크기, 줄 수, 소리의 높이

3. 논리 놀이, 학급앨범 만들기

- *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에 호기심을 갖는다.
- * 자기만했을 때 뭐하며 놀았는지 실수한 적은 없는지 알고 싶어 한다.
- * 앨범정리는 이 같은 아이의 흥미와 호기심을 채워주기 쉬운 놀이다.
- * 여러 사진을 관찰하고 비교하면서 분류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 훌륭한 논리 학습이 될 수도 있다.

<학급앨범 만들기>

- ① 앨범에서 엄마, 아빠, 아이의 사진을 찾음
 - 비슷한 또래, 비슷한 상황이면 더 좋음
 - 돌 사진도 좋고 초등학교 입학식이나 소풍 사진도 좋음
- ② 세 장의 사진을 두고 비슷한 점을 찾아보게 함
 - 먼저 눈, 코, 입, 이목구비를 비교
 - "눈은 엄마 닮았네, 입은 누굴 닮았지?"
 - 엄마와 아빠의 얼굴은 다르지만 자기 얼굴 속에 두 분의 모습이 섞여있음을 알고 재미 있어 함
- ③ 옷차림, 배경, 표정이 서로 다른 점을 비교해 봄
 - “어떤 표정을 짓고 있니?”, “어느 계절에 찍은 걸까?” 등의 질문을 던지고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조원들이 서로 상황을 이야기해 봄
- ④ 조원들의 사진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모아봄
 - 소풍, 수학여행, 운동회 등
- ⑤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구분하여 조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체 학급에서의 특징을 잡아 앨범을 만듦

♣ 보충 학습

<관찰을 통한 논술의 예>

“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 연수를 간 적이 있다. 그때 참 다양한 인종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. 슈퍼에서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앞에 다섯 명이 서 있었는데 모두 피부색이 달랐다. 까맣고 하얗고 거무스름하고.... 피부색만 아니라 머리색도 달랐고 말하는 것도 달랐다. 그때 이렇게 많은 인종이 한 지구 위에 사는데 서로 생각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,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면 엄청난 재앙이 올 거란 생각을 했다.”

- * 논제: 지구촌 사회에 사는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.
- * 논거: 슈퍼마켓에서 보게 된 다양한 인종
- * 논거의 전개 방식: 관찰을 통한 비교-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주장에 연결함

이 아이는 충분한 관찰을 통해 인종의 다양성을 알게 되었고 비교를 통해 인종간의 차이와 서로 협력해야 공존할 수 있다는 데까지 생각을 확장해 나갔다. 이렇듯 관찰과 비교를 잘 익혀두면 논술이 훨씬 생동감 있고 설득력도 갖게 된다.